

2018 마을학회 일소공도 대회 : 새로운 바람 발표
(2018.12.15.토)

청년의 귀농귀촌지원정책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센터장
- 김귀영(사무실) 02-2058-2071

중앙정부정책 – 생활비지원, 취업지원, 보육지원

구분	청년영농 창업지원	청년농산업 취업지원	청년스마트팜 보육센터	청년귀농 장기교육	(농협) 청년농업사관 학교
내용	3년간 월급여식	3개월 급여지원	2개월 기본교육 6개월실습교육 1년독립경영	6개월 실습교육 (숙식포함)	6개월 실습교육 (숙식포함)
대상	48% 예비창농자	비농업인	비농업인	비농업 도시청년	비농업도시청년
본인부담	없음	없음	없음	1,680,000원	1,000,000
규모	1,600명	100명	60명('19/300명)	50명('19/100명)	23명('19/2기 60)
총 예산					
업무주체	경영인력과	경영인력과	창조농생명과	경영인력과	미래농업지원센터
운영방식	지자체 배분 농정원 관리	영농조합법인선정 및 신청자 연계	교육기관선정 및 교육생선발		

* 농업을 하지 않는 귀촌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 성과목표는 모두 영농정책

지방정부정책-저변확대, 멘토링, 정주지원, 창취업지원, 주거지원

구분	전남(5개년)	경북	충남	전북
귀농	청년창업실습농장조성(200개소)	청년농부육성지원 (40명에 천만원지원) (경북청년농부씨앗카드발급)	롯데슈퍼 청년농부 도시청년초보농부플랫폼조성운영 초보농부 경영실천농장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청년농업인스마트팜 기술연수 영농승계 및 청년농업인간의 네트워크	
	청년창업타운 (129개소)	예비 청년귀농인 멘토링 (년20명)	농촌지도자회원청년농업인 후원결연	
	청년마을로 프로젝트(2,000명)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3개소	청년농업인창농스쿨 청년농업인 유통협업시스템	
교류	대학생 농산업 체험 캠프(800명)			청년삼락캠프
귀촌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농촌정주)		
		청년유타일자리지원 청년마을일자리지원 청년커플창업지원 청년문화커뮤니티조성		
시 · 군			홍성청년허브, 홍성청년농부인큐베이팅 등	완주 투잡 청년쉐어하우스, 캠프 진안 씨악510플랫폼 무주 청년정착지원

* 경남(남해 청년기본소득제), 강원, 충북, 제주, 경기(청년 셰어팜....)는 제외

20代

일경험이 부족하고, 빠른 정착의지가 별로,
'탐색이 더 좋아', 빠른 정착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일반화 어려움

30

일경험은 좀 있고, 빠른 정착이 필요,
장기간 교육 부담, '멘땅에 헤딩이라도 해야',
소득문제, 결혼여부에 따라 다른 상황

40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불혹이다.

청년인듯 청년 아닌.....중앙정부차원 청년 아님
지방정부는 좀 다를수도.....

승계농
한농대

전혀 다른 상황

진입장벽

높은 농지가격
임대를 위한 신뢰부족
농업기술습득어려움
마을어르신들과교감
어려움
친구찾기 어려움
농업인에 대한 시선
자신감, 자존감
미래설계

인사동 소개팅 에서 나온 말. 말. 말(농촌으로 들어오려는 청년들 입장)

- 청년커뮤니티 필요해
농촌지역에 이미 공고히 자리잡은 4-h, , 후계농모임이 아닌 나랑 비슷한 편하게 모일수 있는.....
- 기본 소득제(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측과 아니다는 반반)
소득모델, 일자리 모델이 필요하다
- 주거문제(다양한 청년대상 사업에 인건비 지원만 있고 주거지원 없다, 그 인건비도 최저임금수준)
그마저도 일년단위사업, 지속성 담보가 문제, 적어도 3년계속사업의 지원 필요
- 청년의 기준, 혹은 청년농으로 지원 기준에 대한 의문
- 자립과 연결된 지원인가? 지원이후 자립가능한가?
- 청년들이 독립영농을 하기까지 모이기부터 준비하기, 독립하기까지를 도와줄 중간지원조직 필요
(연습공간/지도자? 등)
- 여성에 대한 지원 필요
- 행정지원이 약인지 독인지(건전한 결합방법은 없을까?)

어떤 청년농업인, 혹은 농촌청년을 원하는가?(지원하는 입장)



청년지원금 불편



후레쉬마켓



유기농청년



폐북으로
농산물유통



스마트팜운영



파밍보이즈
팜프라



스타청년농부



농튜버

다함께 고민해보기

청년귀촌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귀촌)농촌을 살기 풍성한 곳으로 만드는 비농업 생활기반이 생길 가능성, 농촌형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지키면서, 이웃을 사랑하고(건강한 먹을거리를 나누겠다는 생각),
생산비가 최소로 들어가는 농업을 지향해야할텐데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동일 면적이라면 생산비는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상품성을 좋게하여 매출은 늘리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게 필요하다.
생활비가 덜 들어가는 농촌생활기술교육이 더 많아져야한다.
농외소득교육도 필요

(청년형 소농소득프로그램 발굴 필요) 행복하기 위한 청년농부되기, 돈이 없어도 농사할 수 있기

(완충지대) 진입부터 정착까지를 지원해줄 중간지원조직

(사업의 성과 측정) 정착만이 성과로 계측되는 현실, 그럼 뭘 봐야하나요? 장기적이며 추적조사를 해야해
(고민) 그런데 정부나 지방정부가 청년농이나 농촌에 정주하려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는게 맞는지?
출발부터 의존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제안하기

농촌탐색-진로선택-진입-정착 전 과정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농촌청년지원조직 필요

1. 탐색프로그램
2. 창농, 취업, 귀촌 등 유형별 구분에 따른 진로선택 지원
3. 진입프로그램(주거, 농지임대, 시설마련, 농사연습, 창업연습, 농촌사람들과 교류 등등)
4. 정착프로그램(초기 생활안정자금, 독립경영, 자립 지원)

각각이 없다고도 있다고도 못하는 현실 – 어떤 법적근거가 필요할지(기재부는 인건비 지원 안해)